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7월 25일)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선명상의 진면목을 사회 리더와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시작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마지막 이론 강좌가 8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강의 직후 가진 기념촬영.

진우 스님 선명상 법문, 대중과 通했다

8월 20일 선명상 아카데미 제7강으로 이론 강좌 회향

일곱 강의 평균 250여 명 참석
연인원 1700여 명 모으며 '인기'
강좌 등록인원 절반 가량 '개근'
강의 말미 '키워드 명상법' 화제
참가자 "선명상 생활 실천 계기"

신중일 · 김가령 기자

선명상의 진면목을 사회 리더와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시작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마지막 이론 강좌가 8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내 팔자 바꾸는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7번째 강의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들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정원주 대우건설회장(중앙신도회장 당선인),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는 공군사관학교 불자회 생도 10여 명이 동참해 진우 스님의 선명상 법문을 경청해 눈길을 끌었다.

선명상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에 나선 진우 스님은 자기 마음 문제는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자기 자신의 감정 덩어리가 자신의 업식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내가 일으키는 고락(苦樂)의 감정은 내 업의 발현이고 결과다. 계속 화를 내며 대상을 탓하는 것은 내 업만 쌓이는 행위"라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업식의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앞날은 선명상에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결론적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리해 스스로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감정의 진폭을 줄여가는 선명상을 실천해야 한다. 자기 자신에 맞는 명상법을 찾아 지금 당장 선명상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1시간 30분의 강의가 마무리된 후 참석 대중을 대표해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이 감사의 꽃다발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 25일 시작된 선명상 아카데미는 7강까지 평균 250여 명, 연인원 1700여 명이 참석하며 인기를 이어갔다. 강좌 등록인원 324명 중 절반 가량인 160명이 7번의 강의를 모두 참석했다.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진우 스님의 강의는 단순히 선에 대한 교리적 설명에 국한되지 않았다. 마음의 구조와 작용에 대한 불교적 해설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서양철학과 양자물리학을 넘나들며 이뤄진 마음 구조 및 작용에 대한 설명은 대중들의 이해도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진우 스님이 강의 말미마다 제시했던 '키워드 명상법'은 일상생활에서 명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 진우 스님은 △'5초 우선 멈춤' 선명상(1강) △'하루 5분 무시로' 선명상(2강) △'쉘 패스(Shall pass, 지나가리라)' 선명상(3강) △'그림자' 선명상(4강) △'방하착(내려놓음)' 선명상(5강) △'삼수(三受)야 가라' 선명상(6강)을 제시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법문 핵심은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계속 업을 쌓아 어두워지는 길이니 선명상 정진을 통해 밝은 지혜로 함께 나아가자'는 당부"라고 정리했다.

이어 "총무원장스님이 7번에 걸쳐 선명상 강의를 한다는 것은 선명상 대중화라는 원력이 이었기에 가능했다. 이 같은 원력으로 한국사회가 밝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중들이 전한 강의료를 전부 어려운 이웃과 자비행을 행하는 불교단체에 기부한 것도 의미가 크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강의료로 모연된 3000만원을 노인무료급식소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원각, 노숙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다함께 나누는 세상과 자립준비청년 5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7번에 걸친 선명상아카데미 강좌를 들은 참가 대중들은 진우 스님의 선명상 강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은 "선명상 강의를 통해 진우 스님께서 구상하시는 불교 포교의 일면을 확인했다. 또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법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지금 발생한 고락의 문제가 자기자신의 업식으로 발현됐고, 스스로 업식을 녹이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하신 말씀에 깊이 깨우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7번의 강좌에 모두 참석한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부처님 말씀을 스스로가 조용한 시간을 통해 되새겨 보는 것이 선명상임을 알았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나 감정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매일매일 5분 명상을 실천하라는 6가지 명상법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강좌에 개근한 이은임 전국여성불자회 부회장(봉국사 신도회장)은 "5분 우선 멈춤 선명상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됐다. 모든 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게 우선이라는 부분이 크게 와 닿아 실천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명상아카데미의 대미는 8월 24~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선명상 템플스테이'가 장식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서는 진우 스님의 선명상 법문과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혜민 스님(고담선원 주지), 혜주 스님(진관사 명상센터장)의 수행지도가 진행됐다. 〈차주상보〉

진우 스님 법문 지상중계 5면

'역대급' 국회 정각회 개원한다

9월 2일 서울 조계사서 제22대 개원 법회

이헌승 정각회장 취임식도

제22대 정각회 개원 및 회장 취임법회가 9월 2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이날 법회에서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의 헌등, 이헌승 정각회장의 헌화와 취임사 후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조계사 맑은소리 합창단의 축가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법어, 정각회의 발언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불교계를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법회에 동참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 조계종 직영사찰 주지스님, 조계종 부실국장스님 등이 참석한다. 중앙신도회와 전국여성불자회, 대통령실 불자회, 공무원불자연합회, 조계사 총신도회 등 신도회 측을 비롯해 정각회장과 정각회 국회의원,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및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22대 국회 정각회는 56명이 가입하며 역대 최다 회원을 기록했고, 스타급 의원도 다수 포함돼 출범 전부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힘 26명, 민주당 26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등 56명이 가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곽상원 의원,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의원, 6선인 주호영, 추미애 의원 등 스타급 의원도 다수 가입, 정각회 영향력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헌승 신임 정각회장은 4선 중진 의원으로 정각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냈으며 국회 보좌관 시절, 불자모임 '법우회'에서 활동하는 등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졌다.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했다.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인 2026년 5월 29일까지다. 임은호 기자

해인사 원로·중진스님, 결의문 발표

선용 스님 등 9명 명의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원로중진 특대위)는 8월 16일 선용·혜문·원학·원택·여연·원타·대오·종본·경성·도현 스님 명의로 된 결의문에서 현 주지 혜일 스님의 참회와 징계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원로중진 특대위는 결의문에서 "방장스님의 남은 임기를 회향할 수 있도록 솔선 모범을 보여야할 주지가 국장들을 선동하고 2차에 걸쳐 산문 입구에 현수막을 게재해 총림의 위상을 실추하고 방장스님을 음해하는 문구를 옮겨 출입하는 관람객과 산내 대중의 화합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총림 행정 책임자인 주지는 스스로 책무를 유기했다"면서 "현 주지는 임회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교구종회를 소집, 방장스님을 불신임 결의했으며 이는 종헌종법을 무시한 교구종회의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는 종헌종법을 유린, 초법적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장스님의 추천으로 임명된 주지가 스스로 산중 대덕 원로스님들과 총림대중을 기망했다"면서 주지스님의 참회와 사퇴를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사 령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김 가 령
김 민 재
2024년 8월 25일 부 이 상 2명

결 의 문

1. 해인사는 조계종단 최초의 총림이자 성철 방장 큰스님이후 수행 도량으로 그 중추적 역할을 다해 왔다.
2. 전임 주지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신임 주지(혜일) 임명과정에서 故자승스님의 절대적 후원으로 부득이 산중 대중의 동의 절차 없이 방장스님의 추천으로 현 주지(혜일)가 임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3. 방장스님의 반년 정도의 남은 임기를 회향할 수 있도록 솔선 모범을 보여야 할 주지(혜일)가 국장들을 선동하고 2차에 걸쳐 산문 입구에 현수막을 게재하여 총림의 위상을 실추하고 방장스님을 음해하는 문구를 옮겨 출입하는 관람객과 산내 대중의 화합을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총림 행정의 책임자인 주지(혜일)는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다.
4. 뿐만아니라 현주지(혜일)는 임회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교구종회를 소집하여 방장스님을 불신임 결의하였으며, 이는 종헌 종법을 무시하여 교구종회의 권한 밖일 뿐만 아니라 전례도 없는 종헌종법을 유린하여 초법적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
5. 600여명의 총림 재적승들의 만장일치 추천과 중앙종회에서 추대된 방장스님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방장스님의 추천으로 임명된 주지(혜일)는 스스로 산중 대덕 원로스님들과 총림대중을 기망하고 오만불손한 패악질을 자행한 사실이 있다.
6.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현 주지(혜일)는 총림대중과 방장스님께 참회하고 즉각 주지직을 사퇴하라.
- 현 주지(혜일)의 불법적, 패륜적 행위에 대해 종헌종법의 절차에 따라 징계요청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직무정지를 요청한다.
- 그럼에도 사퇴하지 않을 시에는 총림대중의 관습법에 따라 사퇴토록 노력할 것이다.

2024년 8월 16일

해인사 안정과 총림수호를 위한 원로중진 특별대책위원회
선용 혜문 원학 원택 여연 원타 대오 종본 경성 도현